

# 평가 컨설팅을 통한 '漢文教師의 評價 知識에 관한 研究

— PCK 評價 컨설팅 獎學을 중심으로 —

許 連 球\*

## <目 次>

I. 序論	IV. 漢文科 評價를 위한 知識
II. 評價 컨설팅과 現況	V. 結論
III. 評價 問項 誤謬 分析	

## <국문 초록>

2003년부터 교육계에서도 컨설팅의 개념을 활용한 '컨설팅 獎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전의 지시나 전달 형태의 지도적 장학보다는 조언, 상담 등의 형태를 중시하는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과 평가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2명의 한문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실정으로 볼 때, 한문교사의 專門性 向上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문과 평가 컨설팅트들에 의하면 한문교사들이 평가문항 제작 시 자주 誤謬를 범하는 내용 중에는 평가의 일반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문과 고유의 평가지식에 대한 내용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학습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 전문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평가 컨설팅을 통해 볼 때 한문과 교사들이 한문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h7543@hanmail.net

가 지식은 한문과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한문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식은 ‘教科 內容知識’과 ‘評價學的 內容知識’, ‘學習者 活動 知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 내용 지식’에는 교육과정지식과 교과내용지식이 하위요소가 되며, ‘평가학적 내용지식’에는 평가 목표의 이원 분류, 발문, 답지, 편집, 문항유형 지식이 하위요소가 된다. ‘학습자 활동 지식’에는 정답률, 오답유도, 학습자 반응 정도,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한문교사가 이러한 지식에 대해 어느 한 면이라도 부족하다면 온전한 한문과 평가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가 컨설팅은 한문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문교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지향적인 컨설팅으로 인해 한문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한문과, 평가 컨설팅, 평가 전문성, 문항 오류, 평가 지식

## I. 序論

학교는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다.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場이기도 하다. 교사는 자신이 專攻한 교과지식을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 지도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꾸준히 탐구하고 개발시킨다. 도서를 참고하여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대학원이나 직무연수를 통해 지도방법을 습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전문성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학교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장학은 교사의 학교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평가방법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컨설팅 장학이 지역단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화하고 전파하기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한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어쩌면 이것은 오랜 시간 한문교사들의 고민거리였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향상된 기능이었을 것이다. 한문교사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교과지식이나 교육학 지식만을 얻는다고 학습자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학습자의 평가를 위한 기본 素養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현장 교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이나 평가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써 현장 중심적인 전문성 향상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간 학교는 장학이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은 기존 장학처럼 지시·감독·통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지도·조언·협력·봉사 등의 성격이 강하다.

한문과 교사는 학교에서 1~2명이 근무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評價 專門性은 무엇인가? 이들의 평가를 위한 지식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평가 전문성을 위한 한문교사의 지식인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한문과 평가 전문성 향상에 대한 후속연구<sup>1)</sup>이며, 한문과 수업분야의 PCK 개념을<sup>2)</sup> 한문과 평가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장 한문교사들의 평가문항에 대한 PCK 활동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 전문성의 하위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문과 지필평가 문항 출제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국한하며, 2007년부터 경기도에서 활동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컨설팅을 받은 일부 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1) 허연구, 「한문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모색」, 『漢文教育研究』 第 3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2) 백광호, 『타이머와 죽비』, 한국학술정보, 2008, pp.72-75. 참조.

## II. 評價 컨설팅과 現況

### 1. 평가 컨설팅의 의미와 진행 과정

#### 1) 평가 컨설팅의 개념

국어사전에는 컨설팅(consulting)을 “경제 분야 용어으로써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 하였다.<sup>3)</sup> 주로 ‘창업컨설팅’, ‘경영컨설팅’ 등에 쓰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컨설팅’, ‘웨딩컨설팅’으로 발전하여 ‘취업컨설팅’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에서 컨설팅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학교 컨설팅’, ‘컨설팅 장학’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학교 컨설팅’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이며, 주로 학교 교육과 경영 전반의 분야가 대상이다.<sup>4)</sup> ‘컨설팅 장학’은 학교 컨설팅의 일부로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활동이다.<sup>5)</sup> 이전의 장학 개념이 주로 指導的 역할을 수행했다면 컨설팅 장학은 助言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장학의 일환으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는데,<sup>6)</sup> 이 시기에는 도교육청의 장학 담당부서나 지역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교과 교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정장소에 모아 전달하는 연수

3)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4) 진동섭,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학지사, 2003, p.51. 참조.

5) 진동섭·김도기, 「컨설팅 장학의 개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Vol.23, 한국교육행정학회, 2005, p.7. 참조.

6) 경기도교육청, 2003~2006학년도 경기도 장학지도 계획(경기도교육청 (구)홈페이지 중등교육과 자료실)

를 실시하였다. 한문교과도 일부 수업이나 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교사가 강사로 위촉되어 다수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sup>7)</sup> 2007년부터는 ‘PCK 컨설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컨설팅 장학요원을 도교육청에서 선발하였고,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다.<sup>8)</sup> 이때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평가분야의 컨설팅 장학이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권역을 6개로 늘리고 컨설턴트의 숫자도 늘렸다.<sup>9)</sup>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가분야 장학의 형태를 컨설턴트와 개별 학교 한문교사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은 현직교육의 발전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의 등을 통해 정보를 제시해 주는 방법보다는 직접 제작한 것을 발표, 실연, 실습, 토의하는 방법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전문성 향상 방법들은 큰 집단 활동 보다는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연구결과<sup>10)</sup>로 볼 때, 전문성 향상의 좋은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2) 평가 컨설팅단의 조직과 컨설팅 진행 과정

경기도 교육청 평가 컨설팅단의 조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로 교과담당 장학사의 추천에 의해 조직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공모에 의해 컨설팅단을 모집하였다.

컨설팅단은 다음의 6가지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

응모 > 선정 > 공지 > 기초적인 교육 > 역량강화연수 > 컨설팅단 완성

- 7) 이때에도 요청장학의 형태로 학교에서 신청한 교과에 한해 장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8) 경기도교육청, 내용 교수법(PCK) 컨설팅단 연수자료 I, 「좋은 수업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2007.
- 9) 경기도교육청, 2011 컨설팅 장학 지원계획(교수학습지원과-7347), 2011.
- 10) 김정환, 『장학론-이론·연구·실제』, 학지사, 2002, pp.418-419. 참조.

발령교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하되 수업이나 평가에 대한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가 최종으로 선발된다. 선정된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컨설팅단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조직된 컨설팅단의 평가 컨설팅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평가 컨설팅 접수 > 학교와 유선통화 > 컨설팅 일정조정 > 정기교사 지필평가 문항 접수 > 컨설팅 내용 작성 > 컨설팅 단원의 학교 방문 컨설팅

학기 초 계획에 의해 컨설팅 계획을 컨설팅단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컨설팅단의 각 교과 담당자는 일정을 확정한다. 컨설팅 1~2주일 전에 컨설팅 담당자는 컨설팅 대상 교사의 문항을 메일로 받아 컨설팅 내용을 작성하며, 지정된 날에 학교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에 도착한 컨설턴트는 학교 담당자를 통해 한문교사와 만나게 되며, 해당학교의 한문교사에게 출제한 문항, 또는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턴트는 전반적인 한문과의 평가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제출된 문항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침삭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컨설턴트는 가능하면 교사에게 지시적인 말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다른 학교의 우수한 출제 문항을 다수 소개하면서 평가 문항에 대한 전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문교사에게 평가이외의 교과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만약 컨설턴트와 한문교사의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문항지에 침삭한 내용을 메일로 전달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한다.

평가 컨설팅을 신청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교장, 개인이 신청 > 관련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컨설팅단과 유선통화 > 접수 후 해당 교사에게 전달 > 정기고사 지필평가 문항 전송 > 일정조정 > 평가 컨설팅실시 > 컨설팅 후 설문조사

컨설팅 장학이 일률적인 지도의 개념보다는 학교나 교사의 자발성에 근거하므로 학교장이나 개인 교사가 신청을 한다. 이를 관련부서에서 신청하여 컨설팅단과 협조가 완료되면, 해당교사는 자신의 문항을 메일로 보내준다. 컨설팅을 받은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에 참고한다.

## 2. 컨설팅 신청 현황

본격적으로 학교 단위로 평가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부터이다. 2007년부터 2011년 평가 컨설팅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표-1> 경기도 한문과 평가 컨설팅 장학 신청 및 실시 현황

년도		신청횟수(대상 한문교사수)		평가 컨설턴트수
		중학교	고등학교	
2007	전반기		5(12명)	1
	후반기		6(11명)	1
2008	전반기		6(10명)	2
	후반기		8(17명)	2
2009	전반기		13(21명)	4
	후반기		8(14명)	4
2010	전반기	2(35명)	10(18명)	2
	후반기	1(12명)	2(5명)	2

11) 2007~2010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 PCK 컨설팅 결과보고 자료이며, 2011년 통계는 지구별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년도		신청횟수(대상 한문교사수)		평가 컨설턴트수	
		중학교	고등학교		
2011	전 반 기	1지구	5(6명)	5(9명)	3
		2지구	7(7명)	4(7명)	3
		3지구	3(3명)	3(6명)	2
		4지구	3(3명)	7(11명)	3
		5지구	1(1명)	2(3명)	1
		6지구	1(1명)		3
	후 반 기	1지구	5(6명)	6(10명)	3
		2지구	14(16명)	2(4명)	3
		3지구	2(2명)		2
		4지구	8(9명)	4(6명)	3
		5지구			1
		6지구	3(3명)	2(4명)	3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회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2007:11개교→2011:87개교)이며, 2011년에는 권역을 나누어 더욱더 확대 실시되고 있다.

2007년에는 1명의 컨설턴트가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자도 주로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컨설팅을 받는 한문교사는 의욕적이지 않았으며, 거부감까지 표하였다. 컨설턴트도 수업교환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학교를 1명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해야 하는 점 등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무엇보다 컨설팅 당사자가 부담감을 가지면서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보다 조직화되었다. 교과별 컨설턴트의 숫자를 늘려 개인별 컨설팅 학교 수를 줄이면서 컨설턴트의 부담이 줄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컨설턴트의 컨설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09년부터는 컨설턴트를 선

발할 때 선발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가능하면 컨설턴트가 근무하는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배정하였고, 직접적인 교류까지 겸하게 되어 평가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경기지역을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sup>12)</sup> 컨설턴트의 숫자도 이전에 비해 많은 수를 확보하였다.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면서 컨설팅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호응도가 이전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컨설턴트의 자질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동안 활동했던 한문과 평가 컨설턴트들은 한문교사의 평가 문항 컨설팅과 관련하여 발문 능력 부족, 교육과정 인지 부족, 평가 문항 유형에 대한 지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컨설팅을 마친 한문교사들은 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앞으로 자주 컨설팅 기회를 가져 평가에 대한 지식을 함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sup>14)</sup>

### Ⅲ. 評價 問項 誤謬 分析

평가문항은 문항제작단계에서 출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가 완료되면 검토요목에 의해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sup>15)</sup> 평가 컨설팅을 의뢰한 학교의 한문교사들이 출제한 평가문항의 출제 오류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2) 경기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6개 지구로 나누어 각 권역 내의 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모집하였고, 지역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13) 2011년 경기도에서 활동한 한문과 컨설턴트는 모두 15명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평가문항출제와 관련한 업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 14) 참여한 15명의 교사로부터 컨설팅의 필요성과 평가 컨설팅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종합하였다.
  - 15) 허연구, 「한문과 영역별 평가 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55-59. 참조.

### 1. 문항제작 일반원칙 오류

#### 1) 발문의 오류

평가문항 컨설턴트에 의하면 현장 한문교사들의 문항 중 발문에 대한 오류 사항이 많았다. 컨설팅을 의뢰했던 한문교사의 발문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발문1. 본문의 밑줄 친 ‘㉠水險不通’의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발문2. 위 본문의 ㉠之는 지시대명사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문맥상 어조사 之의 지시대상으로 옳은 것은?
- 발문3. 상대적인 한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발문4.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유래의 성어는?
- 발문5. 나)에서 가장 늦게 풀이되는 한자는?

발문1과 발문2는 지나치게 길게 진술되었다. 발문1은 ‘본문의’, ‘밑줄 친’, ‘㉠’, ‘水險不通’ 등 네 가지 동일한 지시 요소를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발문2는 ㉠을 지시대명사로 제시하여 지나치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발문3은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즉, ‘뜻’이 상대인지, ‘필순의 순서’가 상대인지 또는 다른 요소가 상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발문4는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 주종관계 및 포함관계가 불명확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문이다. 발문5도 부적절한 단어로 발문한 경우이다. ‘늦게’는 ‘시간 등이 뒤쳐지다’는 의미이며, 순서를 나타낼 때는 ‘나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풀이되는’이 아닌 ‘풀이하는’으로 발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발문4와 5는 발문 작성 시 국어문법과 단어의 의미에 맞게 발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컨설턴트가 제시한 발문은 다음과 같다.<sup>16)</sup>

16) 경기지역 컨설팅 장학 컨설턴트 개인 자료를 참조하였다.

- 수정발문1. ㉠의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정발문2. ㉠이 가리키는 것으로 옳은 것은?
- 수정발문3. 뜻이 상대되는 한자끼리 연결한 것은?
- 수정발문4.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성어는?
- 수정발문5. 나에서 가장 나중에 풀이하는 한자는?

## 2) 답지의 오류

문항은 발문과 답지로 구성되어 있다. 발문의 완벽성 뿐만이 아니라 답지도 출제원칙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오류로 파악된 문항의 답지는 다음과 같다.

- 답지1. ① 자라다 ② 길다 ③ 어른 ④ 장점 ⑤ 좋아하다
- 답지2. ① 孝子 ② 敬子 ③ 善子 ④ 惡子 ⑤ 天子
- 답지3. ① 뜻이 같다 ② 음이 같다 ③ 부수가 같다 ④ 한자의 모양이 같다  
⑤ 아무 관련이 없다
- 답지4. ① 壓券 ② 壓卷 ③ 白眉 ④ 出衆 ⑤ 伯仲

답지1은 ‘長’의 뜻을 물은 문항이다. 답지는 일반적으로 길이 순에 의해 배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답지2는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도록 하는 문항이다. ‘子’가 반복되기 때문에 ‘子’를 제시문으로 옳기고 나머지 한자만 답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지3은 한자의 공통점을 묻는 문항이다. 답지 ⑤의 경우에는 오답의 매력도가 매우 떨어진다. 답지4는 발문이 없이 답지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③,④,⑤는 동일한 의미의 성어이며, 학습자는 ①,②의 답지를 보고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문교사가 제작한 평가 문항 중 세트문항의 일부에서도 답지 오류가 발생하였다. 주로 복합형<sup>17)</sup>의 문항에서 1개의 지문에 여러 개의 하위 문항을 작성할 때 발생한 오류이다.

17) 허연구, 「한문과 영역별 평가 문항 유형의 연구」, p.25. 참조.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가) 有(㉠)者는 必有(㉡)이라                    |
| 나) 初志不變                      다) 東問西答 |
| 라) (㉢)扶(㉣)助                  마) 善男善女 |

1. ㉠과 ㉡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는? (4점)  
 ① 始, 宗 ② 宗, 始 ③ 是, 宗 ④ 是, 終 ⑤ 始, 終
2. ‘처음의 뜻이 전혀 변하지 않음’의 뜻을 지닌 성어는?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을 지닌 성어는?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한자는?  
 ① 只 ② 目 ③ 步 ④ 相 ⑤ 行
5. 다음 중 같은 한자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한 성어는?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세트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각 문항이 다른 문항과 독립적인 관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문에 5개의 문장이나 성어를 제시하고 5개의 문항이 각각 다른 답을 요구하여 학습자들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답지를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서 4지선다, 3지선다, 2지선다로 변하다가 마지막 문제에서는 아예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도록 답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문제지 내에서 이미 다른 문항에 제시한 내용을 중복하여 답지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항도 다수 있었다.

### 3) 기타

#### ① 불명확한 평가요소

평가 문항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

나 일부 문항에서는 발문의 내용과는 달리 평가요소가 불명확하여 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 경우도 있었다.

문제. 빈칸에 들어갈 성어로 알맞은 것은?

**교사:** 거기 과자 먹는 두 사람, 수업시간에 이게 웬일이니? 과자봉지 이리 내라.

**학생1:**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저는 반도 안 먹었어요.

**학생2:** 어, 저는 아직 한개 밖에 안 먹었어요. 재는 저보다 많이 혼내주세요.

**교사:** 뭐라고? 수업시간에 과자를 먹는 것은 잘못이다.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물어봤어? 너희 둘의 행동은 \_\_\_\_\_야. 알겠니?!

- ① 五十止百止 ② 五十止百止 ③ 五十步百步 ④ 五十步百步 ⑤ 吾十步百步

이 문항은 발문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의 의미에 해당하는 성어를 찾는 문항이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성어의 의미이다. 그러나 답지에서는 ‘五十步百步’라는 성어의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발문처럼 한다면 답지에 ‘五十步百步’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성어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답지처럼 한다면 평가요소를 ‘성어의 한자표기’로 설정하여 발문을 ‘밑줄에 들어갈 성어의 표기로 알맞은 것은?’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요소의 혼란은 발문과 답지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② 지문의 오류

지문은 세트문항의 앞쪽에 위치하는 글이다. 한문 문항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으나, 수능의 경우 발문, 지문, 답지가 주로 짧은 형태의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한문 문항이 출제되면서 제2외국어 문항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이 때문에 한문지문의 경우는 보통 5줄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글로 된 지문의 경우 문항 풀이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길게 제시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

③ 복수 정답 또는 무답

컨설팅 문항 중에는 정답이 두개 이상이거나 아예 무답인 경우도 있었다.

문제. 아래 한자어와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回甲

- ① 不惑 ② 耳順 ③ 而立 ④ 知天命 ⑤ 志學

이 문항에서 제시한 ‘回甲’은 61세를 나타내지만 답지에서는 61세에 해당하는 답이 없다. 그러므로 정답이 없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출제 교사의 한문 지식에 대한 기본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문제. 다음 성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武陵桃源

- ① 桃源은 지명을 말한다.
- ② 胡蝶夢과 같은 뜻이다.
- ③ 物我一體의 경지를 말한다.
- ④ 아름다운 이상향을 지칭한다.
- ⑤ 자연물이 된 듯한 느낌을 뜻한다.

이 문항은 무릉도원의 배경지식과 의미, 연관된 성어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③,⑤는 같은 의미로 복수 정답의 소지가 있다.

18) 허연구, 「한문과 영역별 평가 문항 유형의 연구」, pp.81-82. 참조.

문제. 그림과 관련 있는 성어는?



- ① 登龍門 ② 四面楚歌 ③ 結草報恩 ④ 漁父之利 ⑤ 千辛萬苦

이 문항은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어를 찾는 문항이다. 그러나 그림만으로 발문의 요소를 파악하여 정답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의 상황은 뼈를 물고 있는 개의 상상인지, 아니면 다른 개의 모습을 상상하는 상황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 정답의 소지가 있다.

## 2. 한문교과 특수 상황 오류

### 1) 교육과정 내용 미 준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현장의 한문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컨설팅한 문항에서 다수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발견되었다.

발문1. ㉠과 한자어의 짜임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발문2. 다음 중 주술목구조인 것은?

발문1은 2007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한문 문항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어라는 개념은 단어나 어휘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교사는 여전히 한자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발문2는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법적인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직접 발문에 드러내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은 한문

학습자에게 도식적인 문법적 지식만을 암기하도록 하여 한문학습에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술빈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주술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제. 한자의 구성원리 중 그림으로 본뜨기 어려운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접이나 선으로 나타내는 구성원리는?

- ① 상형 ② 지사 ③ 회의 ④ 형성 ⑤ 가차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문항은 위 문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힌 한자의 짜임은 象形, 指事, 會意, 形聲의 네 가지이다. 그러나 5지선다형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차자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가차자를 지도하지도 않고 문항에 출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 2)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

컨설팅 문항 중 가장 오답의 가능성이 많았던 내용은 한자의 의미를 묻는 경우이다. 이는 평가 시 한자 문항을 출제할 때 한문교사들이 한자의 다양한 뜻을 살피지 않고, 교과서에 제시되거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만을 물으면서 생기는 오류로 파악된다. 문장 속에서의 뜻을 묻는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가 적었으나, 漢字 한 글자만을 물었을 때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다.

먼저, 通假字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수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이다.

문제. 한자의 뜻과 음이 바른 것은?

- ① 恭 공손하다 손 ② 敬 경계하다 경 ③ 謙 사양하다 양
- ④ 勉 얼굴 면 ⑤ 素 본디 소

위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정답을 ⑤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②의 경우

도 ‘警’과 通假字로 쓰여 ‘경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9)</sup> 컨설팅트에 의하면 이러한 오류가 한자 영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항을 출제할 때 한문교사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문제. 다른 한자와 결합하거나 쓰인 위치에 따라 음이 변하는 한자가 아닌 것은?

- ① 利 ② 落 ③ 來 ④ 內 ⑤ 梨

이 문제도 한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복수정답에 휘말릴 수 있는 문항이다. ‘內’은 ‘납’이나 ‘내’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 3) 인터넷 자료에 대한 盲信

한문교사 중에는 단문이나 성어를 출제할 때 인터넷 자료를 발췌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쓰다 보니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여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문제.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는?

1991년 고향인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에서 고교를 졸업한 차이웨이( 차이웨이)는 삼륜차 기사 등 각종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어렸을 때부터 고문자에 취미가 있었던 차이웨이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책을 보며 연구에 몰두했다. 고문자학에 조예가 깊어지면서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올렸고, 중국 고문자학의 석학인 추시구이( 추시구이) 푸단대학 교수는 단번에 그의 실력을 알아봤다. 차이웨이는 지난해 9월 푸단대 출토문헌·고문자연구중심에 연구원으로 초빙돼 <마왕퇴한묘간백집성(馬王堆漢墓簡帛集成)> 편찬작업에 참여했다. 8개월간의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고문자 실력을 인정한 추 교수는 그를 박사과정에 추천, 학교 측과 동료 교수들의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 ① 開卷有益 ② 殺身成仁 ③ 螢雪之功 ④ 言行一致 ⑤ 三人成虎

19) 『교학 대한한사전』, ‘敬’의 字意 참고.

위 문항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성어 문항이다. 위 글은 크게 차이워  
이가 ‘螢雪之功’한 초반의 내용과 그러한 노력 끝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의 책을 보며 연구에 열중한 행동은 ‘開卷有  
益’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開卷有益’은 답지에  
서 정답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문장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속으로  
내재하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출제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자료를 사용  
했을 때는 특히 맞춤법이나 문맥 등이 틀린 상태로 출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한문 문항 유형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지문이나 발문에 한  
자를 병기하여 한문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항도 있었다. 또  
목표 이원분류표 작성의 오류와 한글문서 편집시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sup>20)</sup>

#### IV. 漢文科 評價를 위한 知識

##### 1. 교수 지식의 내용

앞장을 통해 드러난 현장 한문교사들의 평가 오류 문항은 한문과 평  
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것은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를  
위한 각 교과 교사들만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평  
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평가문항 제작뿐만이 아니라 한문과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의 문항 출제 기법이나 검토 기법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함  
양시켜야 한문과의 평가 전문성을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 지식은 원래 술만(Shulman)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20) 한글문서에서 ‘唳’와 교과서의 서체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풍수지탄’과 ‘정  
문일침’ 등은 한자로 변환을 했을 때, ‘風樹之嘆’, ‘頂門一鍼’ 등으로 변환이  
되는데, ‘嘆’이나 ‘鍼’ 등은 1800자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의미한다. 이를 PCK라고도 말한다. PCK는 교과내용지식, 교과별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교과 이해에 대한 지식, 교과별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공식화하는 방법이다.<sup>21)</sup> 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더욱 세분하여 교과내용지식,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교과 이해에 대한 지식,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전문성 제고 노력 등으로 나타냈으며 이러한 지식이 합하여져 교사의 PCK 능력이 갖추어 진다고 보았다.<sup>22)</sup>

이렇게 본다면 한문교사의 교과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도 별도의 교수 지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문 독해 활동을 7가지로 분류할 때,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한문 독해 교수학적 내용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sup>23)</sup>, 한문과 평가를 하기 위한 교사의 지식도 한문 평가 교수학적 내용 지식 안에 포함된 하위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 2. 한문교사의 한문과 평가 지식

한문과 평가를 위한 교수 지식은 한문교사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기준이 된다. 이석현은 술만의 PCK개념을 교과교육의 평가에 활용하였는데,<sup>24)</sup> 이를 한문과 평가에 적용시켜 본다면, 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크게 교과 내용 관련 지식과 교수학적 내용지식, 그리고 학습자 활

21) 이화진 외,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별 내용교수법(PCK) 개발연구-2006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6-1, 2006, pp.119-1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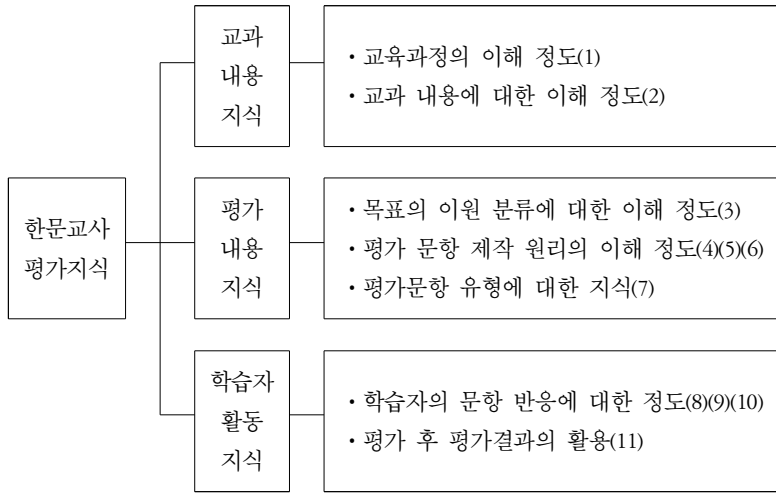
22) 이화진 외, 위의 논문, pp.124-125. 참조.

23) 백광호, 앞의 책, pp.239-242. 참조.

24) 이석현,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75. 참조. 수학과와 평가 문항 작성에 필요한 지식 영역을 15개의 소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동에 대한 지식으로 볼 수 있다.

<표-2> 한문 교사 평가 지식 세부 분류표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한문 교사는 학생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즉 교과내용지식을 모르면 한자의 뜻을 물을 때 오답이나 복수정답이 나올 수 있으며, 평가학적 내용지식을 모를 때 불명확한 발문이 나오고, 학습자 활동 지식을 모르고 문항을 출제 할 때 성어문항 출제 시 문항 풀이와 관련이 없는 긴 한글 지문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평가관련 지식을 경기도 평가 컨설팅 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의 이해 정도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해설서에 제시된 내용을 아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정한 한문과 지식의 범위, 교육과정에서 지양하는 평가의 내용을 알고, 교육과정에 사용하는 한문과 전문 용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 2)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에 포함된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과 연계하여 아는 것이다. 한자의 음과 뜻에 대한 지식, 교과서 본문에 대한 독해와 기타 문법 지식, 성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자 문항을 문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출제할 때에는 자전을 활용하여야 한다.

## 3) 평가 목표의 이원분류에 대한 지식

평가 목표를 이원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평가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목표는 내용과 행동 영역으로 나뉜다. 내용은 교육과정으로 나타나며, 행동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단순히 지식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를 집약한 목표 이원분류표의 작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야 한다. 목표를 이원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발문지식

발문에 대한 지식은 개별 교과를 넘어서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간결하게 필요한 용어로 요약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반복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어 어법에 맞도록 주종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피동의 표현을 피하고 가능하면 발문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부정발문은 순화해야 하며, 정답의 단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5) 답지지식

답지는 발문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발문이 명확하다면 답지는 학습자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길이 순에 유의하고, 반복적인 말은 발문이나 제시문으로 옮겨야 하며, 정답의 위치는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오답의 매력도가 유사하도록 작성하고, 특히 세트 문항 작성 시에는 다른 문항의 상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6) 편집지식

한문과 평가 문항은 학습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지문이 뒷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글자의 모양이 편집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쉬운 문제를 앞쪽에 배치하고, 한글프로그램 한자 사전에 잘못 저장된 성어 등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 7) 문항유형지식

한문과 문항유형은 교육학적 일반 유형과 한문과에 적합한 문항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문항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읽기나 이해는 선다형의 문항 유형도 가능하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 측정을 위해 서술형 등의 문항유형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 한 문항지 내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평가에 있어서도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유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소재채택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자를 묻는 문항에서 단순히 음과 뜻만을 묻기 보다는 그림이나 대화를 통한 문항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평가 문항의 모습일 것이다. 또 성어를 물을 때

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묻는 능력이 필요하다.

#### 8) 정답률지식

학습자들이 문항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정답률 지식을 습득하고 상위권이나 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정답률 지식이 필요하다.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어떤 유형을 적용하였을 때 정답률이 높고 낮아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험적인 정답률에 큰 차이가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올바르게 학습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9) 오답유도지식

학습자의 완전 학습을 파악하는 것은 정답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답지를 학습자들이 오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관성이 있도록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만약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 및 분석 능력 등은 저차원적인 암기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답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10) 학습자 반응 정도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 한자카드 문항을 냈을 때 답지에 먼저 반응하여 역으로 문항을 맞춰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습자들은 문항을 접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11) 평가결과 활용 지식

학습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 교수-

학습 과정에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문항을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풀이해야 하며, 교무업무시스템의 문항분석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의 평가 지식은 단시일에 습득할 수는 없으며 부단한 연수와 실습을 통해야 가능한 것이다.

## V. 結論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한문과 평가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된 컨설팅 장학은 이전의 지시나 전달적 장학 형태보다는 지도, 조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 갈수록 많은 학교에서 컨설팅 장학을 신청하고 있으며 한문과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에 의하면 한문과 평가 문항제작에 있어서 한문교사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내용 중에는 평가의 일반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한문과 고유의 평가지식에 대한 내용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평가 컨설팅을 통해 볼 때 한문과 교사들이 한문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지식은 한문과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교과 내용지식과 평가학적 내용지식, 학습자 활동지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교과내용, 평가 목표의 이원분류, 발문, 답지, 편집, 문항유형, 정답률, 오답유도, 학습자 반응 정도,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지식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문교사가 위 지식에 대해 어느 한 면이 부족하다면 온전한 한문과 평가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문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 평가

컨설팅을 통해 한문과 평가 교수학적 지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문 교사들의 평가 컨설팅에 대한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률적인 컨설팅 신청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경험이 20년 이상인 高經歷 교사들은 자신의 문항에 대해 컨설팅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평가 컨설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지양하고 필요한 교사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컨설턴트의 資質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교사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에 법제화된 수석교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완벽한 평가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자신이 직접 컨설팅을 요청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각개 학교의 한문교사는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堅持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 김왕규, 「한문과 학생 평가의 실태와 요구 분석」, 『한문교육연구』 제3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 「한문과 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3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김정환, 『장학론-이론·연구·실제』, 학지사, 2002.
- 박수정, 「학교컨설팅과 교육청의 만남:가능성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집』, 2011.
- 백광호, 『타이머와 죽비』, 한국학술정보, 2008.
- 이석현, 「평가 문항 제작에 필요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화진 외,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별 내용교수법(PCK) 개발연구-2006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6-1』, 2006.
- 진동섭,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학지사, 2003.
- 진동섭·김도기, 「컨설팅 장학의 개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Vol.23, 한국교육행정학회, 2005.
- 허연구, 「한문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모색」, 『漢文教育研究』 第3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 「한문과 영역별 평가 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 「추가된 학습요소의 목표와 문항의 개발」, 『한자한문교육』 제2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 , 「한문과 평가 문항의 내용 타당도 확보 방안」, 『한문교육연구』 제3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Abstract

*Research about sino Korean teachers' knowledge of assessment - with in the boundaries  
of a focus on PCK assessment consulting-based supervision*

*/ Heo Youn Ku\**

Since 2007, the Gyeonggi-do education office has been conducting a consulting-based supervision that emphasizes on advice and consultation rather than direction-based supervision. I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division of lesson and assessment. Many school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is method. It has had a good influence on the sino Korean teachers' professionalism,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chools have only one or two sino Korean teachers on staff.

According to sino-Korean assessment consultants, sino Korean teachers often failed to observe general guidelines of assessment and dealt with their assessment carelessly. This is good evidence to show that there is an absence of assessment professionalism in the evaluation of learners. When considering assessment consulting, sino Korean teachers should possess assessment knowledge in evaluating the sino-Korean subject.

Assessment knowledge as a means of evaluating sino-Korean subject could be divided into subject content, assessment content and learner behaviors.

Knowledge about the content of subjects includes course and subject content. There are subcomponents of knowledge with respect to assessment content such as specifications, questions, answer sheets, editing and question types.

Knowledge about learner behaviors includes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duced wrong answers, degree of learner response and knowledge of

---

\* Sungkyunkwan Univ. / h7543@hanmail.net

application of assessment results. Sino-korean teachers could not perform well in their assessment of sino-Korean subject.

An assessment consulting has contributed to sino Korean teachers' professionalism. If sino-Korean teachers applied for consulting for themselves and the consulting carried out continually, professionalism of sino-Korean teachers would be expected to improve.

**【Key words】** assessment consulting, sino Korean teachers' professionalism, knowledge with respect to assessment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